

성명	차승미	수험기간	2021.03.~2024.07.
학교	중앙대학교	전공	전자전기공학부
키워드	기특 민소고독점		

## 1차 공부

### 【민법】

#### ☑ 59회 1차 - 77점

##### (1) 수강했던 강좌

이상윤 강사님의 '기본강의'와 '최종정리'를 들었습니다.

##### (2) 사용했던 책

이상윤 강사님의 '민법의 정석'과 류호권의 '포인트 객관식 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3) 실패원인

비교적 쉽게 출제된 회차임에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객관식 문제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에 다시 기본서 회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때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않고 기본서만 본다면 실력은 오르지 않습니다. 제 합격수기를 보신 수험생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60회 1차 - 70점

##### (1) 수강했던 강좌

별도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 (2) 사용했던 책

김동진 강사님의 '민법공방' 책과 '민법공방연습'을 사용하였습니다.

##### (3) 합격원인

가장 먼저 59회 때는 기본서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문제풀이 후 단권화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개념을 적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김동진 강사님의 교재로 바뀌고, 개인적으로 개념이 탄탄하게 적혀있어 따로 단권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 덕분에 문제풀이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9회 때보다 점수는 낮지만, 60회 민법은 과락률이 매우 높았던 해인 만큼 전년도 보다는 실력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재산권법】

#### ☑ 59회 1차 - 92.5점

##### (1) 수강했던 강좌

각각 특허 - 임병웅 / 상표 - 박종태 / 디보 - 김인배 기본강의만 들었습니다.

(2) 사용했던 책

리담 특허 / 리담 상표 / 리담 디모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3) 공부방법

산업재산권법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기출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에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또한, 조문집을 들고 다니며 식사시간이나 이동시간에 빈출인 부분들을 완벽 숙지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한번 실력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아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 되므로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60회 1차 - 90점

(1) 수강했던 강좌

별도의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2) 사용했던 책

전년도와 같은 책을 사용하였습니다.

(3) 공부방법

59회 때와 똑같이 '기본서 회독 + 기출문제풀이 + 조문 암기'를 반복하였고, 고득점하는데 무리 없었습니다.

참고로 조문 문제는 한문제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 암기하였고, 기출은 45~59회까지 모르는 문항이 아예 없을 정도로 반복하였습니다.

**【자연과학개론】**

☑ 59회 1차 - 62.5점

(1) 수강했던 강좌

물리 - 손용욱 / 화학 - 서형석 / 생물 - 최성윤 / 지구과학 - 박준희 강사님의 기본강의만 수강하였습니다.

(2) 사용했던 책

위 강사님들의 기본서만 보았습니다.

(3) 공부방법

생물과 지구과학은 자신 있었기에 "만점반자"라는 목표로 완벽 암기하였습니다.

반면, 물리와 화학은 그나마 자신있는 단원들만 열심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 60회 1차 - 65점

(1) 수강했던 강좌

유튜브로 손용욱 강사님의 문제풀이(물리)와 원동신 강사님의 문제풀이(화학) 영상을 보았습니다.

(2) 사용했던 책

전년도와 같은 책을 사용하였습니다.

(3) 공부방법

생물, 지구과학, 화학은 전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하였고 물리는 매일 최소 30분씩 투자하여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했습니다.

4과목 중 1과목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화학은 푸는데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 가성비가 안나오니 생물, 지구과학, 물리를 최대한 완벽하게 하시고 화학은 자신있는 부분만 꼼꼼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수험생활】

### ☑ 체력관리

원래 운동을 매우 싫어하는 편이지만, 고시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기간 동안은 필라테스를 주 2~3회 정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2차 기간 동안에는 너무 바빠 운동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 대신에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저와 같은 분이시라면 적당한 정도의 운동만을 추천드립니다. 과한 운동은 다음날 컨디션에 지장이 있습니다.

### ☑ 멘탈관리 - 59회 1차를 떨어진 후

저는 59회 1차를 2문제 차이로 떨어진 후 수험을 포기했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한 첫 실패가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6개월동안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많이 되돌아보고 살피게 된 기간이라 후회하지는 않으나, 10월 말부터 다시 책상에 앉아 1차 공부를 하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혹시라도 61회 1차를 불합격하고 62회를 재도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결국 끝에는 '합격'이 기다리고 있으니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공부하시는게 너무 힘이 든다면 고시반, 공스타 등을 통해 같은 수험생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정확한 1차 수험기간은 2021.03~2022.02 / 2022.10~2023.02 입니다.

저는 59회 1차를 처음 불합격한 후 대략 6개월 간 많이 방황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께 제 합격수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차 공부

### 【민사소송법】

#### ☑ 동차기간 - 36.66점 과락

(1) 수강했던 강좌

이창한 교수님의 '기본강의', '사례강의', '실전GS A형(절반만)'을 수강하였습니다.

(2) 사용했던 책

이창한 교수님의 '통합기본서', '핸드북', '사례집'을 사용하였습니다.

(3) 과락 원인

부득이하게 동차기간 때 학기 병행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진도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답안지를 5월에 처음 작성해보았고, 첫 회차를 풀자마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민사소송법은 포기를 했었고 핸드북만 반복 숙달했었습니다.

따라서, 2차 기간 동안 학기 병행은 비추입니다. 또한, 동차 때 아무리 힘들어도 민사소송법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기득 때 말그대로 정말 개고생합니다...)

#### ☑ 기득기간 - 73.33점 민소 고득점

(1) 수강했던 강좌

이창한 교수님의 '심화강의', 'GS A형', 'GS B형', '보충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2) 사용했던 책

주로 기본서는 이창한 교수님의 '암기노트'를 이용하였고, '핸드북'과 '사례집'으로 문제풀이를 하였습니다.

(3) 고득점 원인

하단 '민사소송법 고득점 비결' 칸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제 합격수기를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법】

#### ☑ 동차기간 - 49.33점

(1) 수강했던 강좌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초GS PLUS', '실전GS B형'을 수강하였습니다.

(2) 사용했던 책

박형준 변리사님의 '준특허' 기본서를 사용하였습니다.

(3) 공부방법

동차 때에는 공부방법을 딱히 깨닫지 못해 GS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 ☑ 기득기간 - 45.33점

### (1) 수강했던 강좌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 '실전A', '실전B'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 (2) 사용했던 책

박형준 변리사님의 '준특허 기본서'를 메인으로 공부하였고, '준특허 통합사례집', '준특허 쟁점판례집'도 함께 보았습니다.

### (3) 공부방법

특허는 다른 과목들보다 '센스'가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센스'가 없는 편이라 박형준 변리사님의 GS 답안지를 보며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덕에 5-6월달 GS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6월부터 2개년치 GS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그 덕에 7월에는 모르는 논점(GS 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시험은 솔직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신유형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어 올해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시험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62회 변리사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신유형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표법】

## ☑ 동차기간 - 47.33점

### (1) 수강했던 강좌

한경훈 변리사님의 '기초 GS PLUS', '실전 GS B형'을 수강하였습니다.

### (2) 사용했던 책

한경훈 변리사님의 '데생' 기본서를 사용하였습니다.

### (3) 공부방법

동차 때에는 그저 한경훈 변리사님의 GS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판례 분석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저와 잘 맞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 기득기간 - 55점

### (1) 수강했던 강좌

최지환 변리사님의 '판례강의'와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GS A형', '실전GS B형'을 수강하였습니다.

### (2) 사용했던 책

한경훈 변리사님의 '데생' 기본서와 최지환 변리사님의 판례집을 보았습니다.

### (3) 공부방법

3월달 GS 때 매번 판례 숙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동차 때보다 판례 공부를 심도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경훈 변리사님의 판례 분석법을 통해 암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덕분에 5-6월 GS 성적이 매우 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7월에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말씀대로 2개년치 GS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직전에 본 특허 때문에 멘탈관리를 못하여 평소 실력보다 상표를 훨씬 못 봤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저는 GS 단권화 덕분에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 ☑ 동차기간 - 55.33점 (PASS)

(1) 수강했던 강좌

정다운 변리사님의 '기초GS'를 수강하였습니다.

(2) 사용했던 책

정다운 변리사님의 '택틱' 기본서를 사용하였습니다.

(3) 공부방법

동차 때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정다운 변리사님께서 주신 두문자 암기파일과 GS 답안지만 열심히 봤습니다. 이때에는 디자인보호법이 매우 쉽게 나와 어려움이 딱히 없었습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신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시험 2일차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지 마시고 미친듯이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니 1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기득기간 - 58.33점 (PASS)

(1) 수강했던 강좌

정다운 변리사님의 '기초 GS', '실전 GS', 막판 '무료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2) 사용했던 책

정다운 변리사님의 '택틱' 기본서를 사용하였습니다.

(3) 공부방법

기득 때에도 두문자 암기파일과 GS 답안지를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 식사시간, 이동시간이나 양치할 때 틈틈이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올해는 특허법처럼 출제되었지만, 내년에는 개정된 부분들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6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디자인, 조약주주 등 개정된 부분들을 주의깊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안지】

### ☑ 답안분량

저는 지어내기를 잘하는 편이라 16p 이상은 늘 채웠던 것 같습니다.

(동차: 민소 - 17p 특허 - 18p 상표 - 16p // 기득: 민소 - 20p 특허 - 20p 상표 - 21p)

하지만, 점수는 답안분량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게 쓰시는 분들께서는 낙담하실 필요가 없고 많이 쓰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내가 진짜 필요한 말만 적고 있나"라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없는 부분들이 길어질수록 답안 인상이 정말 안좋아지기 때문입니다.

### ☑ 목차

특허, 상표는 강사님의 답안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했고, 민소는 강사님의 답안 스타일을 기초로 저만의 답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정답은 없으나, 동차 티가 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 ☑ 고득점 팁

논리의 흐름이 중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구분했습니다. 논리의 흐름이 중요한 문제들은 '논점정리' -> 'A인지 여부' (A이므로 B가 문제됨) -> 'B인지 여부' -> '결론' 순으로 작성하여 암기가 아닌 사고하며 문제를 푼 듯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중요 키워드나 제가 내린 결론에는 "" 쌍따옴표를 사용하고 글씨체를 키워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에 확신이 있다면 목차에 결론을 적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수험생활】

1. 수험기간에 혼자 공부하는 것이 외로워 동차 때부터는 교내 고시반에서 반원들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며 제 고통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덕에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저는 기득 때 매일 8:30~23:00까지 공부했습니다. 너무 힘들면 월요일 오전에 잠을 더 잤고 5월부터는 그 반나절도 아까워 공부를 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이란게 사실 운도 중요하다 보니 기득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떨어진 후 포기하고 돌아설 때 후회는 남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에너지를 모두 방전한 탓에 한달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체력을 쏟았습니다. 62회를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분들께서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후회없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제가 1차 떨어지고 잠시 수험을 포기했을 때, 정말 변리사를 그만두고 싶은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를 일으켜주신 우리 엄마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여든이 넘으신 연세에도 108배를 하며 기도해주신 우리 할머니 그리고 제가 힘들까 걱정해주시고 위로해주신 삼촌, 이모들, 이모부, 외숙모, 오빠, 새언니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 험난한 길을 걸어준 저의 러닝메이트, 응원해준 고등학교 친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늘 응원합니다.

## 민사소송법 고득점 비결

**점수 36.66점→73.33점**

저는 동차 때보다 2배가량 점수가 올랐습니다. 올해 6월까지 GS 등수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제 고득점 원인을 분석하자면, '생각하는 공부 + GS 단권화'입니다.

### ☑ 생각하는 공부법

먼저 기본서를 회독할 때 그냥 무지성 암기가 아닌 "언제 이 파트가 나오는지", "학설이 나뉘게 된 이유 및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척이유 1호 관련 판례들을 공부할 때 "공법이"와 "재판의 공정성"을 키워드로 판례를 분석하였고 이외에도 비슷한 단어나 문장들은 연결시켜 '구.조.화'하였습니다.

1) 제척의 의의와 취지
제척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이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다(제1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설문의 법원이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인지, 그렇다면 그가 관여한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있어 상고가 인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제척이유 제1호의 「법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의 의미
이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위에 있는 관계이다." [양 공판]
3) 설문의 경우★
"중증원들은 중증원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증규약을 개정한 중증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해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중증원들의 중증을 상대로 한 위 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판사가 당해 중증의 구성원인 경우, 제1호에 해당한다" (※판 2010.5.13. 2008구합2254).

이 공부법을 반복하다보면 암기량이 줄어들고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직접 해보시면 아마 감을 찾으실 겁니다.

### ☑ GS 단권화

6월 중순부터 이창한 교수님의 3개년치 GS를 모두 모아 겹치지 않는 것들만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4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목차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답안 분석을 가장 중요시여겼습니다. 일단 '논점정리' 부분에서 가장 큰 논점 2~3개 정도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남은 목차를 읽어보면 단번에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당해 사례와 큰 논점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선결로 적어줘야 하는 논점이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GS 단권화를 하실 때에는 지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GS 단권화는 6주 안에 해야하기 때문에 숙지된 문제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시험장에 10문제 정도만 들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알려주신 GS 단권화를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GS 단권화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상표강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